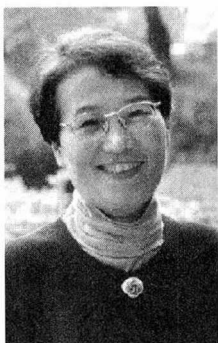


호스피스는 생명 사랑입니다

김수지

한국호스피스협회장 ·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자연은 어김없이 때를 맞춰 찾아와 추운 날씨로 얼어 붙었던 우리 삶에 따뜻함을 불어넣어 준다. 겨울 내 죽은 것 같이 보였던 앙상한 나무에 푸릇푸릇 움트는 새싹을 보면서 생명에 대한 경이로움을

느끼는 동시에 살아가는 것에 대한 밝은 희망들을 품게 된다.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내 생명은 이 우주 역사 속에서 단 하나 밖에 없는 참으로 소중한 삶(life, 생명)이다. 이러한 삶, 생명이야 말로 바로 인간의 가장 중요한 기본 가치가 아니겠는가! “사람이 세상 모든 것을 얻고도 자기 생명(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성서의 말씀은 우리 생명에 대한 최우선적인 존중성을 일깨워 준다.

불행히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100만 이상의 새로 잉태된 생명들이 그 아름다운 삶을 피워보지도 못한 채 낙태로 죽어간다. 그리고 소홀한 실수로 빚어지는 교통사고만 해도 인구비로 볼 때 세계 최고 기록이라고 한다. 최근 급증하는 자살은 매 40분마다 스스로 자신의 귀한 목숨을 끊어가고 있다니 참으로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하신 예

수님의 삶과 그 분의 인간생명사랑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된다. 인간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은 것은 인간을 귀하게 대하지 않은 것이며, 이는 곧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애(人間愛)가 없는 증거이다. 사랑은 관계에서 실천되고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만 인간은 삶의 보람과 의미를 느낄 수 있으며 더 나아가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사는 풍성한 삶을 맞출 수 있는 것이다.

몸의 죽음을 내다보며 두려움과 실망감, 절망감 속에 휘말려 있는 호스피스 대상자를 돌보고 섬기는 일은 일정한 틀이나 형태가 없는 관계적 섬김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사랑하느냐가 중요하다.

호스피스는 환자가 남은 여생동안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질 높은 삶을 살면서 평안하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도록 그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영적 요구를 충족시키며, 또한 사별가족의 고통과 슬픔을 경감시키기 위한 총체적인 생명 사랑이다. 이러한 호스피스는

첫째, 진정한 인간애를 바탕으로 생의 말기에 있는 환자와 그 가족을 섬기는 생명사랑 운동이다.

둘째, 사람 사이에 사랑의 관계를 확립하고 풍성한 삶에 초점을 맞추는 사랑의 돌봄 활동이다

셋째, 마지막 한 가닥의 호흡분량까지도 사랑으로 아끼고 감사 안음으로써 안식과 함께 새로운 차원의 삶으로 안내하는 새 생명 운동이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는 그 어떤 사회보다도 희망이 있으며 발전이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불치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처한 우리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돈독히 하며, 생활의 동반자로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려는 작은 헌신의 각오를 이번 사순절을 지나면서 다시 새롭게 해 본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세상에 생명

을 충만케 하는 씨 종자로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실 만큼 우리 인간을 사랑하신 예수님의 심정으로, 그리고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돌보는 호스피스 대상자의 삶이 보다 풍요롭도록 사랑과 관심의 줄을 늦추지 않도록 하자. 왜냐하면 사랑과 관심은 생명의 씨앗이 되기 때문이다.



- 류시화 -

소금별에 사는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 없네
 눈물을 흘리면
 소금별이 녹아 버리기 때문
 소금별 사람들은
 눈물을 감추려고 자꾸만
 눈을 깜박이네

소금별이 더 많이 반짝이는 건
 그 때문이지